



성인에게 필요한 예방접종

글 손유나 연세손유나 클리닉 원장

봄철을 맞이하여 운동을 시작하는 등 건강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왔다. 평상시 건강 유지를 위하여 운동과 식이요법에 관심을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 및 성인 예방 접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실상은 성인 예방 접종에 대하여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.

흔히 예방 접종이라 하면 소아에서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.

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몸의 면역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실제 성인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제대로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 봄을 맞이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위해 성인에서 필요한 예방 접종을 체크해 보자.

예방접종	나이(세)	19~29	30~39	40~49	50~64	≥65
파상풍-디프테리아-(백일해)		처음1회 Tdap: 이후 10년마다 Td 1회(권고등급 I)		처음1회 Tdap:1 6개월후 Td: 이후 10년마다 Td1회(권고등급 I) (Tdap은 65세 이하에서만 사용)		
인플루엔자		매년 1회(권고등급 II)			매년 1회(권고등급 I)	
A형간염		2회(0.6개월)(권고등급 I)	항체 검사 후 접종(0.6개월)(권고등급 I)		위험군에 대해 항체 검사 후 접종(0.6개월)(권고등급 I)	
B형간염		3회 접종이 불확실할 때 항체 검사 후 접종(권고등급 II)			위험군에 대한 3회 접종이 불확실할 때 항체 검사 후 접종(권고등급 II)	
홍역-볼거리-풍진		위험군에 대해 최소 1회 접종: 임신 계획 여성에서 풍진항체 검사(권고등급 II)				
수두		위험군에 대해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(권고등급 II)				
인유두종바이러스		여성(권고등급 I)				
수막알균		위험군에 대해 1회 또는 2회(권고등급 II)				
폐렴사슬알균		위험군에 대해 1회(권고등급 I)				1회(권고등급 I)
대상포진					1회(권고등급 U)	1회(권고등급 II)

2012년 대한감염학회 권장 성인예방접종표

- 1. 파상풍:** 파상풍은 2009년 17건, 2010년 14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아연령 이후에도 파상풍에 대해 지속적인 방어 면역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. 파상풍 주사는 4-6세에 마지막 추가 접종 후 10년에 한 번씩 추가접종을 하여야 한다.
- 2. 인플루엔자:**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이 지속적으로 변하므로 매년 접종해야 한다. 매년 10-12월 접종하는게 좋는데 유행 2주 전까지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. 가능한 12월 이전에 접종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유행시기를 감안했을 때 2월까지도 접종해야 한다.
- 3. A 형 간염:** 최근 발생하는 급성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최근 생활 환경과 개인 위생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항체 양성률이 빠르게 낮아져 최근 20-30대 성인에서 급성 간염의 발

- 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 성인에서 6-12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하도록 한다.
- 4. 인유두종바이러스(자궁경부암예방 백신):** 한국 여성의 첫 성 경험 연령을 고려하여 15-17세, 그 시기를 놓친 경우 따라잡기 접종이 가능한 연령을 18-26세로 권고하고 총 3회 근육주사를 시행한다.
 - 5. 폐구균 폐렴백신:** 65세 이상 성인 혹은 만성 질환자, 면역저하자에서 1회 시행한다.
 - 6. 대상포진:** 65세 이상에서 1회 시행한다.
- 위의 성인 예방 접종 스케줄을 잘 체크하여 평상시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하자. ☺